

다산포럼



권순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화회 회장

요즘 한 여고생이 그린 카툰(cartoon) 〈윤석열차〉가 단연 장안에 화제다. 현지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그 '당돌한' 내용도 그렇거니와 이를 두 번이나 '엄중 경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틀 뒤 국경감사에서 여야 간에 오간 실전(舌戰)까지, 참으로 현 정부의 민낯과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바탕 난장(亂場)이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부천시 소속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올해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를 맞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실시해 카툰 부문에서 문체의 〈윤석열차〉를 금상으로 수상했다. 수상 작품들은 축제 기간인 9월 30일~10월 3일에 전시까지 마쳤다. 그런데 전시가 끝난 다음 날 문체부로부터 이를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이 날아왔다. 이유인즉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순수'해야 할 고교생이 감히 대통령을 풍자한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고, 이를 알고도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금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문체부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무려 33회 언급했고, UN 연설에서 21회나 강조한 '자유'를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들끓자 돌연 입장을 바꿔 이번에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차〉가 스티브 브라이트(Steve Bright)가 2019년 『더 선(The Sun)』

‘윤석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에 그린 카툰 〈영국 총리 열차〉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윤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으니 표현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인데다, 『쿠팡 TV』의 시리즈 「SNL 코리아」에서 주현영 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허용해 줄 거냐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었다. 해서 문체부는 대응 전략을 바꿔 표절을 부각시킴으로써 작품성은 물론이고 이를 거르지 못한 심사 과정도 문제 삼으려 했던 듯하다.

그런데 이는 예술 작품 창작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흔히 문학이나 예술에서 원작에 기대어 하나의 작품을 변형해 재창작하는 것을 '패러디'(parody)라고 한다. 그러면 왜 원작을 활용해 재창작하는가? 이미 익숙한 이미지나 메시지를 활용해 이를 변형함으로써 풍자와 비판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다. 남의 작품을 몰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놓고 원작을 활용해 재창작한 셈이다. 패러디가 "시나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쓰는" 표절(剽竊)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그림은 수많은 패러디됐지만 누구도 표절이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의 영원한 고전 〈춘향전〉은 무려 12편의 패러디 소설이 등장했지만 그걸 표절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근대 소설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935)은 최인훈, 주인석 작가는 물론이고, 시인 오규원이나 연극인 성기웅도 같은 제목으로 작품을 변형, 재창작했지만 표절 시비는 없었다. 왜 그런가? 이미 익숙한 원작의 인물과 사건을 활용해 다른 주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여고생이 그린 〈윤석열차〉와 비슷한 카툰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로마스 열차』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무려 12개나 올라와 있었다. '폭주 기판차'라는 이미지

를 활용해 각국에서 거기에 부합한 정치인들을 풍자한 것이리라. 그런데도 표절 시비는 없었다. 마침 원작자인 스티브 브라이트는 〈윤석열차〉가 주제와 소재가 모두 다르기에 "절대 표절이 아니다"(Absolutely not plagiarism.)고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폭주하는 〈윤석열차〉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조종석에는 '김 여사'가 앉아 있고 뒤로는 정권을 받쳐주는 '호위무사'인 4명의 검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있다. 폭주하는 기차에 놀란 국민들이 황급히 피하고, 뒤로는 윤산 대통령실인 듯 무너지는 건물들이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고서는 멸절한 청와대를 놔두고 윤산 대통령실로 이전하여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세를 낭비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더군다나 최근 '외교 참사'를 비롯하여 북한과의 강대강 대처로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 여당 대표의 '토사구팽'(兇死狗烹)과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감사로 인한 야당과의 대치 정국 등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로 끌어내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 대통령과 '48초' 만나고 나오면서 내뱉은 욕설, 비속어 파문에도 당사자인 대통령은 오히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며 언론을 질타하는 '적반하장(賊反荷尙)'식 태도를 보였다. '정력 테스트'와 '듣기평가'를 거친 국민들 70%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옹호하느라 오히려 언론에 편공을 퍼붓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과 여론을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차'의 모습이 바로 현 정부의 민낯일 것이다. 문제는 폭주하는 '윤석열차'에 피하듯 정부의 실정(失政)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툰을 그린 여고생은 유세 때 지구 좌석에 구두발을 올려놓고 있는 윤 후보의 모습을 보고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과연 '윤석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NGO 칼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축제와 쓰레기

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계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에게 주어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광역 시도는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5개 구청 및 각 산하 기관 그리고 광주광역시 예산이 집행되는 회의, 프로그램, 행사,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기후 위기 관련 산업 행사장이나 시장과의 간담회 또는 회의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페트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들이 주최하는 축제에서는 생수병, 빨대, 플라스틱컵, 비닐, 음료 캐리어, 풍선, 행사 팸플릿,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물티슈 등을 사용하거나 배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례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혼합되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들만 있지는 않았습니. 시의회에서는 추석 명절 현수막을 걸지 않았고, 어느 회의 장소에서는 생수병 대신, 음수대와 다화용컵을 설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음식 부스에서는 다화용기를 사

용하고 세척에 밀가루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모습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모습들이 예전보다 더 늘어난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회용품 사용량은 2009년 191억 개에서 2018년 294억 개로 50%, 비닐 봉투 사용량은 2009년 176억 개에서 2018년 255억 개로 약 40%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요? 캐나다가 올해 12월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내년에는 판매까지 중단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행사와 축제 현장에서 다화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쓰레기 배출 장소에 담당 인력을 배치하며, 방문객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는 작업만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가 정책을 앞서는 더 많은 정책 아이디어와 예산, 전담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은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취합된 결과들을 정리·분석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노력들이 광주의 일회용품 사용, 쓰레기 처리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고



김영국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재난 예방을 위한 LX 국토정보 안전 플랫폼

이번 피해는 지하라는 특수한 공간에 재난 방지 시설이 부족함에 기인했고, 이는 분명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이다. 하지만 재난은 구조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재난에 취약한 공간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LX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적 역할 수행이라는 의무감을 갖고,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선진화된 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과제와도 결을 같이한다. 실질적 재난의 손실 예방, 피해 복구 지원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LX에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풍 또는 정마로 인해 침수된 지역에 대해, 매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침수 흔적도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침수 흔적도는 침수 당시 침수 범위, 침수심, 침수 시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상습적인 침수 지역의 원인 분석을 통해 지자체 재난 정책 수립 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한다.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침수 지역의 위치까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한 침수 흔적도 활용가치가 높아져

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LX는 지하 정보 구축 지원 전담기구로 지정되어 국가산업단지 및 지하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간 정보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계한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전기·화학·가스 등을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의 오류 상황을 정비하고,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을 통해 지하 시설물의 올바른 위치와 최신성을 확보함으로써 지하 시설의 신규 구축, 노후배관 교체 등 관련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에 공사를 진행할 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또한 방지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항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LX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 스마트 국토 정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 재난 대응 체계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 국가 주도의 안전 플랫폼에 지적 및 공간 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성장을 동반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오늘날 화두인 'ESG 경영'이라는 사회적 역할과도 밀접하다. 쉽지 않은 길 가운데에 LX는 늘 존재할 것이며,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가꾸기 위해 힘쓰고 있다.

社說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 경제난 눈감은 지방의회

코로나19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의정비 수준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시군구들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치 의정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은 5개 자치구 모두 구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구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광산구는 최소 통결하거나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구와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을(1.4%)만큼 올리기로 했다.

전남은 순천·여수 등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곡성군

74주년 여순사건 정확한 피해자 조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4주년. 올해는 특별법 시행과 희생자·유족 첫 인정에 이어 정부가 주최하는 첫 추념식이 열리는 등 명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잇따랐다.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피해자 신고 접수가 더기만 해 온전한 진상 규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내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을 개최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일인 사건으로 인한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유족들은 '반란'과 '빨갱이'라는 오명을 쓴 채 70년 이상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때늦었지만 지난해 6월 제정된 여순사

건 특별법이 올 1월 시행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이 처음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한데 지난 1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희생자·유족 신고에는 현재 3200여 명만 접수됐다. 1949년 피해자가 1만 1000여 명이었던 것이라하면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매우 부진하다. 유족들이 고령인데다 아직도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자 수 파악이 진상 규명의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신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 희생자 신고가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남들과 달리 배낭도 매지 않는 단출한 차림이다. 그가 찍어 보내는 서석대 표지석 인증 사진은 그의 변함없는 산행 일기장과 같다. 얼마 전 재방영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에 인상적으로 시청했다. 네덜란드 청년 세 명이 첫 행선지로 서울 시내 유명 관광지 대신 지리산 노고단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영상을 통해 성장세 주자장에서 출발해 노고단 정상까지 오르는 그들의 산행을 동행하듯 지켜볼 수 있었다.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에서 온 청년들에게는 '생애 첫 등산'이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해발 1507m의 지리산 노고단이 단순한 여행

無等鼓 🛥

영국산악인 조지 말로리(1886~1924)의 '산이 거기 있으니까'(Because it's there) 라는 명언은 널리 알려져 있다. '힘들게 왜 산에 올라가느냐?'는 물음에 사람마다 나름의 이유를 펼 것이다. 동년배인 L교사는 같은 질문에 "산은 내 종교!"라고 말한다. 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 무등산에 오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남들과 달리 배낭도 매지 않는 단출한 차림이다. 그가 찍어 보내는 서석대 표지석 인증 사진은 그의 변함없는 산행 일기장과 같다.

산의날

얼마 전 재방영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에 인상적으로 시청했다. 네덜란드 청년 세 명이 첫 행선지로 서울 시내 유명 관광지 대신 지리산 노고단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영상을 통해 성장세 주자장에서 출발해 노고단 정상까지 오르는 그들의 산행을 동행하듯 지켜볼 수 있었다.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에서 온 청년들에게는 '생애 첫 등산'이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해발 1507m의 지리산 노고단이 단순한 여행

지 이상의 남다른 공간으로 가슴 속에 자리잡았을 듯싶다. 오늘은 '산의날'이다.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고,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02년 지정했다. 이제 등산은 전 국민의 취미 생활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 이후 등산에 입문하는 MZ세대도 증가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등산 인증샷을 올려 공유한다.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사람들은 산과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겨 주는 '녹색의 위로'는 전 지구적인 감염병을 이겨내는 백신이나 다름없었다. 히말라야 8000m급 고봉 16좌를 완등한 임흥길 대장이 에세이집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서 들려주는 산 철학을 울림을 남긴다. "산에 오르는 것은 세상을,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하나하나의 등반이 너무나도 값진 인생 수업이었다."

코로나 시국에 무등산이 가까이 있어 참 다행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본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5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42	220-0621	다자인실	220-0536
220-0680	220-0621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